

**개방이후 전업농 피해  
매년 3천8백만원**

지난91년도 오리고기 수입개방이후 오리를 전업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수입개방으로인해 받는 경제적손실이 매년 3천5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은 본회가 지난 91년도 오리고기가 수입개방된 이후 지난해까지 수입된 오리고기 수입량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입개방이후 지난해까지 수입된 오리고기 수입총량은 3만3천3백58톤으로 이를 출하체중 3Kg의 오리로 환산시 2천7백79만8천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같은 수입량을 국내 육용오리 연도별 출하가격으로 환산하면 1천1백15억원에 달하고 이를 지난해말 현재 오리 2천수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 382농가를 기준으로 계산시 개방에 따른 전업농가의 피해금액은 총 3억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오리 전업농가들은 91년도 수입개방이후 지난해까지 수입개방으로인해 매년 농가호당 3천8백만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규모가 가장 컸던해는 96년도로 총 피해액이 2백80억원으로 호당평균 7천만원의 피해를 보인반면 가장 적었던 해는 91년도로 37억8천만원으로 호당평균 9백90만원으로 나타났

다.

**<개방이후 피해규모>**

(단위: 천수,천만원)

년 도	수입 마리수	피해 금액	비 고
91	1,023	378	*수입수수는 정육1.2Kg을 1 수로 계산 *수당가격은 91-92년 3천7 백원, 93-97년4 천원,98년5천2 백원으로 계산
92	3,015	1,110	
93	2,243	897	
94	2,767	1,100	
95	4,095	1,600	
96	7,006	2,800	
97	6,013	2,400	
98	1,632	865	
합 계	27,798	11,150	

**아파트 주부 지방적이고  
살많은 오리고기 선호**

가정에서 오리고기가 소비되는 소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이 적고 살이많은 오리고기 생산과 아울러 오리고기 특성에 대한 홍보, 가공방법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본회 장규호 고문이 아파트에서 잔반을 수거하여 생산된 오리를 그지역 아파트 주민에게 판매하는 행사결과 드러났다.

군포지역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오리고기 직판행사를 벌인 결과 가정주부들은 흰오리보다 토종오리 일명 청둥오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강에 대한 인식 및 지방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가정주부들은 토종오리에 대한 정

육구입시 일반식육과 비교하여 지방이 적고 정육량이 많은 고기를 선호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에서 오리고기 소비를 늘리자면 지방이 적은 오리고기에 대한 생산대책과 아울러 제품가공시 지방을 적게하고 정육량이 상대적으로 많게 가공한 제품 생산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끼오리 가격,육용오리가격  
하향세로 반전**

강세를 지속하던 육용오리,새끼오리 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서 지역간 차이는 있으나 육용오리 가격은 5천원선, 새끼오리 가격은 1천원선으로 조정되고 있다.

새끼오리 가격의 경우 지난 5월1일부로 호남지역이 종전새끼가격을 1백원 인하하여 1천원을 받기로 본회 광주전남도지회 운영이사회가 결정하대이어 충남 천안의 F 부화장도 5월 1일부로 종전가격보다 200원을 인하한 1천원으로 새끼가격을 조정하여 분양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맞춰 타부화장 역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15일 현재 아직도 부화장간에 1천2백원에서 1천1백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끼오리 가격조정은 지난2월 말부터 3월10경까지 1천2백원으로 인상된후 2

개월만의 조정이다.

한편 육용오리 가격은 출하일령이 45일령까지 늘어나면서 출하체중역시 3.1Kg까지 늘어나 수당 출하가격을 5천2백원으로 계산시 생체Kg당 가격은 1천6백77원으로 종전가격보다 1백50원이 떨어져 하향국면을 맞고 있다.

**음식을찌꺼기 발효기  
염가처분 -수원시-**

수원시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잔반처리를 위해 설치한 발효기기 167대를 염가에 처분하고 있다.

발효기기의 처리용량은 일일 100Kg에서 500Kg까지 다양하며 처리가격도 상태에 따라 1백만원선에서 1천만원선까지 다양하다.

이 발효기기들은 아파트단지내에 음식물찌꺼기 처리를 위해 설치됐으나 대단위 공공자원화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구입문의는 수원시청 청소행정과 전화는 0331) 229-2252번으로 하면된다.

**종란 영국으로부터  
5천개 도입**

올해들어 종자용 PS 도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종란이 5천개 수입되어 주목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4월말까지 수입된 종자용

PS는 실적이 없는데 반하여 지난 3월 영국으로부터 종란 5천개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란의 총 수입가격은 7천4백불로 종란개당 1.48달러로 개당 1천7백76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종란은 당초 주원농산이 새끼오리를 도입하려 했으나 영국 육종회사의 자체적인 문제로 새끼오리 도입이 여의치 못하여 종란으로 대체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4월 오리고기 수입은 태국에서 179톤, 미국에서 20톤이 수입돼 총 199톤이 수입되었으며 수입금액으로는 60만9천2백불여치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Kg당 수입가격은 태국산이 2.96 불 미국산이 3.95불로 미국산이 약 1불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오리생산 조짐이 이상하다 배합사료 생산 꾸준히 상승

배합사료 생산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이 것이 오리업계에 불황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회가 자체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현재 배합사료 생산량이 1만2천6백23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황기에 있었던 97년에 비해서도 9.3% 증가된 물량이다.

특히 오리사육량을 짐작케하는 어린 오리 사육량이 2천1백67톤을 기록하여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4%, 97년도에 비해서도 102% 증가한 물량이다.

어린오리 사료 생산량이 증가되는 이유를 몇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가격상승에 따라 일반농가들이 육용오리 사료를 어린오리 사료로 대체하여 급여하는 경우이나 가격이 좋았던 지난 1월과 2월에 비해서도 90%이상 증가하여 사육량 증가를 알 수 있다.

둘째는 후보 종오리 입식에 따른 물량 증가이나 국내 사육중인 종오리가 16만수 내외로 이중 20%가 후보종오리로 입식된다해도 월 3만수 내외로 그량은 60톤내외에 불과하여 미치는 영향이 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난 3월과 4월의 어린오리 사료 생산량 증가는 5월과 6월의 육용오리 출하물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매년 5월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지연되는 현상은 소비량은 3월과 4월에 비해 크게 좋아지지 못하는데 반하여 사육량이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육용오리의 출하일령지연현상은 오리고기 소비량이 늘어나는 6월에 다소회복될 소지가 있으나 출하물량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진다.